



12면

"4년 동안 알찬 대학 만드는데 힘 써와"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음 12월 8일) 제317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형 특례 통해 새로운 시대 열 것”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최종 통과

▶ 관련기사 3면

전북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가운데 법안 통과와 주역인 김관영 도지사와 여·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도의회 의원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 김성주 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희수 추진지원특별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도민에게 상세히 알렸다.

먼저 김관영 지사는 “1년 후면, 우리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우리 도민은 특별자치도민이 된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됐다”라며 “전라북도 지명이 정해지지 이후 126년 만에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한호영 의원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8월에는 정운천 의원의 입법과 한병도 의원의 여야를 대표해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주셨으며, 도의회는 특위를 구성하고, 건의안과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도민의 뜻을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 김광수 도 정무수석,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김성주 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희수·영영선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리핑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때대는 특별자치도 격상·감사기구 독립 등 5가지 특례 준비 후속조치 마련, 결실 거두는데 힘 모으기로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면서 “그렇게 우리는 법사위 계류라는 난관을 뛰어넘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신화를 우리 힘으로 거머쥐고 만들어냈다”고 기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자치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기동이자 뼈대의 역할을 하는 특별법으로 법 통

과로 확보한 △전북특별자치도 격상 △균형회계의 안정적 확보 모색 △국가지원의 지원기구 설치 △특별지원 규정 확보 △감사기구 독립 등 5가지 뼈대에 대해 설명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만큼 전북만의 강점을 발휘할 전북형 특례를 통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며 “함께 도전, 함께 성공,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강한 전북, 성공하는 전북을 만드는 첫 걸음을 뒀고 여야 협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진행상황을 챙기겠다”고 전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제8기 민선 지치시대를 맞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하고, 김관영 도지사 민

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협치를 일궈낸 최고의 성과물”이라며, “연말에 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아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여·야 전북 국회의원들과 국주영은 전북도 의장 등은 특례 준비를 위한 후속조치로 특례 발굴과 전담조직,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준비 등을 마련하면서 결실을 거두는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명품하천 조성 행정력 집중

내년 1559억원 투입...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4개 지구 착공을 포함해 18개 지구(63.9km, 250억원)를 정비한다. 순창 금월천, 정읍 덕천천 등 2개 지구는 내년 준공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전주 가동천 등 11개 지구 신규 착공을 포함해 36개 지구(177km, 742억원)를 정비한다.

특히, 전북도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를 위해 내년 2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조기 착수에 6월

말까지 총사업비의 60%인 78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하천 유역 특성을 조사하고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이·차수계획 수립 등 하천의 정비 및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익산 축성천 등 10개소 37.9km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하천 통

합DB 구축 용역을 진행한다. 이는 하천기본계획, 사유토지 편입 및 하천정비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지도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향후 도내 지방하천 정보 전산화 관리가 가능해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아울러 도내 하천 471개소 3,250km를 대상으로 지장수목 제거, 퇴적토 준설, 하천 내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 점검 등 유지·관리 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내년 6월 우기 이전에 완료해

홍수대응 능력 향상으로 재해예방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완주 만경강, 남원 요천 등 2개소에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 889억원을 투입해 2023년 말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생태·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심 명품하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계묘년 새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독자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내년 1월 2일 신년호 발행합니다.

이맛이 청정라거다!
청정맥아 100% 리얼탄산 100%

청정라거-테라
TERRA
FROM AGM

광고·사진 등주는 보물창 가연성 원산지 인증을 받은 기형이 출원된 상표입니다.